

‘광주 1번지’ 전일빌딩 새롭게 태어난다

광주시, 올 설계 내년 리모델링... 복합공간으로 변모

3층 문화센터·언론박물관, 8~9층 융복합콘텐츠존

5·18민주화운동 등 광주 근·현대사와 함께한 금남로 전일빌딩이 새롭게 태어난다.

광주시는 22일 “광주도시공사 소유인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을 리모델링하기에 앞서 우선 3개층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입 대상층은 전체 10개 층 가운데 3층과 8층, 9층 등 3개 층이며 해당 면적은 4748㎡, 매입 예산은 53억원으로 추정됐다.

시는 11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내년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물이 노후한 탓

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기본설비 공사에 180억원이 드는 등 전체 사업비는 420억원(국비 150억원·시비 27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의 구상 대로라면 전일빌딩은 인접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변모한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에픽’(EPIC)존으로 정해져 교류센터, 아카이브,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지난해 하계 유니버시아드 당시 활용한 ‘EPIC’(Eco·Peace·IT·Culture)의 개념을 ‘Economy(경제), Positioning(도시 위상 정립), Investment

(투자), Culture(문화)’로 확장했다.

1층 일부와 2~3층은 ‘시민참여존’으로, 공공 전자도서관, 문화센터, 남도관광 홍보센터, 언론박물관 등이 조성된다.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존’으로 불릴 4~7층에는 ICT 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8~9층은 ‘아시아 융복합콘텐츠 개발 지원센터’로 조성되며, 극장 형태의 홀로그램 상영관, 스튜디오 등이 들어선다.

시는 10층과 옥상을 ‘아시아 문화전당 관광지원센터’로 조성해 조망시설, 승강기 등을 갖춘 명소로 꾸미기로 했다.

애초 3~10층에 숙박시설인 호텔을 조성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무산됐다. 전일빌딩은 1968년 12월 7층 건물로 준

공된 뒤 4차례 증·개축을 거쳐 10층 규모의 현재 모습을 갖췄다.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라는 주소가 대변하듯 지역민에게는 상징적인 건물로 인식되고 있다.

5·18 당시 옛 전남도청 광장, 분수대 등에서 쫓겨온 시민이 몸을 숨기기도 했던 곳으로, 광주도시공사가 138억원에 매입했다.

도심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으나 활용방안을 놓고 수년간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총괄 용도나 활용방안은 변경될 수 있다”며 “내년 초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北 무수단 미사일 2발 발사

1발 400km 비행 ‘성공’ 평가

결함보완... 도발 위협 현실화

북한은 22일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BM-25)을 2발 발사했으나 1발은 공중에서 폭발했고 1발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즉각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번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재 한미가 오늘 오전 8시5분 두 번째 발사된 무수단 추정 미사일의 성공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일단 40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미뤄 다섯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성능이 개선됐고 기술도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여섯 번째 무수단 추정 미사일을 고각(높은 각도) 사격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각도를 높여 쏘기 때문에 40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거리 3000~4000km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을 의도적으로 높은 각도로 발사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갖춰야 할 최소사거리(500km)에 못 미치지게 비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동해로 발사됐으며 사전에 항행금지지역을 선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에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가 탑재되었는

지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5시58분께 발사한 다섯 번째 무수단 미사일은 150여km를 비행한 후 공중에서 폭발,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와 군 당국은 여섯 번째 무수단 미사일이 일정 수준 성공하자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모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우리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군은 무수단 미사일이 일정 수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함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중원전력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07년부터 30~50기를 실전 배치한 무수단 미사일의 위협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초기비행시험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함께 무수단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日 자위대, 북 미사일 대비 패트리엇 발사 준비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21일(현지시간) 일본 자위대원들이 도쿄 방위청에서 북 미사일이 일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왔을 경우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PAC-3)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연구원 나주 혁신도시 시대 연다

24일 통합 이전... 다음달 13일 입주식

광주전남연구원이 24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로 통합 이전한다.

지난해 9월 8일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통합 출범한 후 지금까지는 광주와 무안 남악신도시에 각각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운영돼왔다.

22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4일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도담리치타워로 이전을 완료하고, 통합연구원으로서 새롭게 도약한다.

재원 마련 등 행정절차상 문제로 인해 다소 지연된 청사 이전은 지난 3월 제8차 정기이사회에서 임시청사 부지 선정 및 이전 재원 편성이 결정돼 제 속도를

나게 됐다. 광주와 남악 두 사무소 운영으로 인한 상시적 연구교류 및 소통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해소됨으로써 사·도 현안 검토 및 대안 제시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측은 연구 및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이 전직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입주식은 내달 13일 오전 11시 운영한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광역의원, 전남 원장, 지역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한편, 통합연구원 독립청사는 나주시의 부지 제공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된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형 일자리’ 싱크탱크에 더좋은자치연구소 선정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연구·지원 등 싱크탱크 역할을 할 기관으로 사단법인 더좋은자치연구소(대표 최동석)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22일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위탁 협약 해지에 따라 최근 공모를 거쳐 더좋은자치연구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더좋은자치연구소는 7월부터 내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사회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광주시는 올해 10억원의

예산 중 남은 기간에 대한 운영비(5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연구소는 2014년 말 설립됐으며 지방자치와 관련한 교육·컨설팅, 여론조사, 공부모임 운영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대립을 극복하고 고용안정과 적정임금 보장, 생산성 증대 등을 꾀하는 것으로 그 실무적, 학술적 토대를 지원 센터가 맡아왔다. /최권일기자 cki@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갑섭 대전청사관리소장 내정

8개 시군 부단체장 내달 인사

전남도 행정부지사에 김갑섭(58) 행정자치부 대전청사관리소장이 내정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30일자로 명예퇴직하는 김영선 행정부지사 후임으로 오는 김 내정자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1일자로 임명된다.

광주일고·조선대 법정대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28회)에 합격한 뒤 완도부군수, 영암부군수, 순천시 부시장, 전남도 경제통상국장·해양수산환경

국장,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남도는 또 조만간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나 임기(2년)가 지난 8개 시·군의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목포·여수·순천부시장과 영광부군수, 다음달 임기 2년이 되는 보성·해남·진도·장성부군수 등이 그 대상이다. 부단체장 인사를 한 뒤 다음달까지 승진·전보 등 상반기 정기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그린카진흥원장 오일근 교수 내정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이끌 광주그린카진흥원에 오일근(58)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내정됐다. 그린카진흥원 이사회는 22일 2명의 최종 후보 가운데 오 교수를 후임 원장으로 의결했다.

오 교수는 광주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조선공학과에서 학·석사학위를, 미국 버지니아 주립 공과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을 거쳐 과학기

술부 과장,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한국인정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오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 원장으로 임명된다.

그린카진흥원은 광주시 출연기관으로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지원, 구조고도화와 투자유치 촉진 등 역할을 한다. 전임 원장은 임기(2017년 10월)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4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원장 임기는 3년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돈도니
생화산당황과기

배달전문점
상표등록번호 제 41-0328004호

저렴한
창업비용 가능

안정적인 매출
<트렌트 지출 없음>

24시간 가맹상담 문의
1544-9217

**돈도니가 광주에서 이뤄낸
4개월의 성공신화!**

OPEN! 2016년 1월 14일 광주 삼촌점 월 4,300만원	OPEN! 2016년 4월 7일 광주 수완점 월 3,200만원	OPEN! 2016년 6월 9일 광주 진월점 일매출 120만원
--	---	---

**광주 첨단점
7월 OPEN 예정!**

가맹개설 조건	표준면적 - 15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테리어 간판&시트지 주방기구 주방비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스시스템 유니폼 판촉물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초도물품 오토바이

= 3,695만원으로 창업가능!
* 상기 내용은 매점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수한 맛과 Quality,
간편한 조리

업종변경의 용이성,
매출저하로 고민하는 매장

독보적인 석쇠불고기
원조 배달 업체

본사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www.DONDONI.co.kr
전국 가맹현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